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비교할 수 없이 큰 인문학의 영향력

문명이 발달하면 야만성은 줄어드는가. 우리가 어릴 때 천사처럼 예쁜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은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깨닫고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문명의 발달은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는다. 왜 역사상 최고로 기술문명이 발달한 지금 여전히 학살과 살상무기는 없어지지 않는가. 아니 더 커지는가.

글_권택영

이런 물음에 프랑스의 학자, 미셸푸코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옛날 귀족은 자기에게 반항하는 하인이나 저항자를 죽였다. 그러나 권력이 소수로부터 다수의 민중에게 옮아가면서 전쟁과 학살은 대량으로 늘어난다. 무기도 대량살상무기로 위력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문명은 야만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면 야만성도 덩달아 증가 하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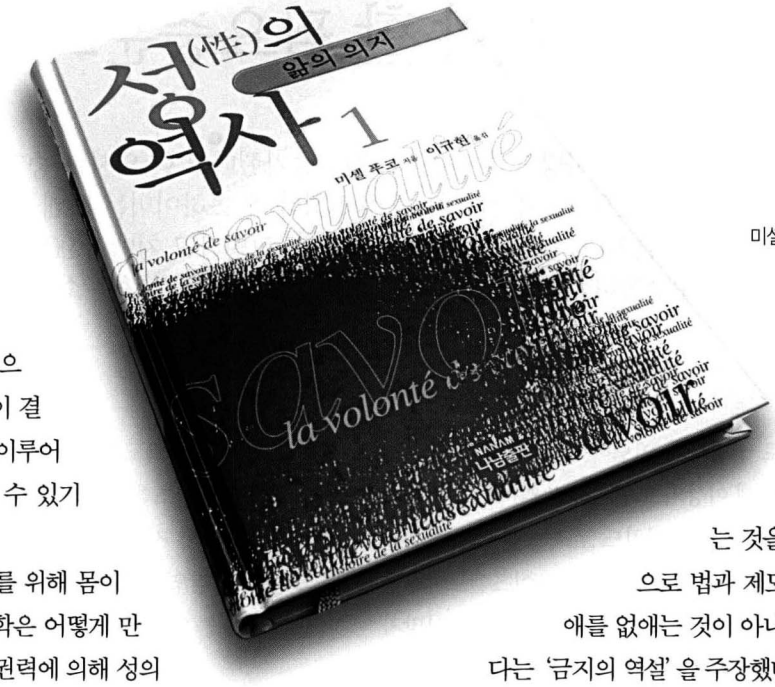
푸코의 책 《성의 역사》(*History of Sexuality*) 제1권은 이 문제에 명쾌한 답을 내린다. 20세기 후반부 세계문화에 푸코가 끼친 영향은 대단했고 여전히 그 영향은 "물질성" (materiality)이라는 단어로 남아있다. 지식은 권력에 저항하고 진리는 권력을 누를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리고 쾌락은 몸의 충동으로 영혼의 감옥이요, 법은 금기로 성충동을 억압해 왔다고 배웠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의 의지를 지식과 권력으로 해석했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동력을 리비도라는 쾌락(주이상스)으로 풀이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성은 물질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물질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식, 권력, 쾌락은 뗄 수 없이 하나이다. 그리고 성(몸)은 바로 그 세 가지가 한 곳에서 만나는 매개체다. 이것이 푸코의 가설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움직여온 진실은 권력에 의해 산출되고 그것은 몸을 매개로 삼아 이루어져 왔으니 몸은 역사와 제도가 새겨진 대단히 정치적이고 구체적인 물질이라는 것이다.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는 이처럼 푸코의 인문학에서 뗄 수 없이 하나가 된다.

몸은 물질이다

성은 영혼을 방해하는 비밀스런 쾌락도 아니고 욕망은 법이 제거할 수 있는 '법의 너머에 있는 어떤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은 쾌락이 만들어낸 담론이고 법은 욕망이 만들어낸 경계다. 그러므로 사실 경계는 지키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넘어서기 위한 경계다. 아주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음식을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식을 권유할수록 환자의 식욕은 줄어든다. 금지나 억압이 없으면 욕망은 느끼지 못한다. 환자에게 음식을 못 먹게 하면 오히려 식욕이 생긴다는 역설이다. 우리는 반문한다. 왜 나는 이룰 수 없는 사랑만을 하는가. 그러나 욕망의 실체란 바로 금지에 의해 생겨나기에 그가 닿을 수 없는 한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된다.

권력도 사랑과 같다. 위반 없이 법이 존재하지 않듯이 저항 없이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쾌락이 있듯이 위반하는 쾌락이 있고 권력의 쾌락이 있듯이 그 권력에 저항하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력은 언제나 이미 그곳에 있다. 어느 곳인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지식이 권력에 봉사하는 이유는 그 둘이 모두 쾌락(리비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푸코가 서구의 근대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가설이었다.

근대의 정치제도와 이념은 산업사회와 민주사회였다. 역사가 국가 중심의 산업사회로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 인구였다. 인구정책은 근대 열강이 부와 권력을 창출하는 자원이었다. 인구는 노동력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의 원동력이고 군대에 기반을 둔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리하여 인구정책은 서구 열강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 인구정책을 위해 몸은 정치와 이념의 대상이 된다. 성에 관한 지식은 비밀스럽게 쉬쉬하면서 담론을 증폭시킨다. 결혼 전의 순결, 일부일처제, 결혼 적령기, 산후섭생, 건전한 자녀양육법, 수명 늘이기, 성의 횟수 등 가족 중심의 교육과 제도가 마련되고 배포된다. 이때문



《성의 역사 1 – 앎의 의지》
미셸 푸코 지음 | 이규현 옮김 | 나남출판
184쪽 | 값 10,000원

에 사생아는 차별받고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된다. 남녀사이의 이성애만이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건전한 가족을 이루어 건전한 노동력과 군사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의 이념과 정치적 제도를 위해 몸이 관리되고 지식이 만들어진다. 성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선 고백과 고해라는 권력에 의해 성의 비밀이 알려지면 과학자는 이것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제도와 권력은 이것을 담론으로 확산하고 배포한다. 푸코는 이런 성과학의 탄생이 억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은 쾌락이라는 리비도이기에 지식과 권력은 즐겁게 담론을 만들어낸다.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쉬쉬하면서 그런 금지가 끝없이 성에 대해 말하게 만드는 욕망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문화는 물질이다

이처럼 몸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이 새겨지는 물질이었다. 그리고 성은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학으로 담론화되고 문학, 인류학, 생물학, 의학 등 다른 인접 학문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지극히 역설적으로 법이 금지한 동성애나 불건전한 성, 불법적인 정사 등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 법은 잉여쾌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문명은 도착증적인 성을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푸코는 자신이 동성애자였고 그가 살았던 청년 시기에 동성애는 처벌의 대상이었다. 에이즈로 죽은 그는 동성애를 도착증적 병으로 금지한 근대 법에 이론으로 저항한 셈이다. 그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노동력과 군사력을 위한 정치이념에 의해 만들어진 자의적 진실일 뿐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 세워진 금지는 동성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그 욕망을 부추긴다는 '금지의 역설'을 주장했다. 바로 이 양면작전이 푸코가 본 성(과학)의 역사다.

그러면 왜 20세기 후반에 세계의 지식인은 그의 가설에 열광했을까. 푸코가 밝힌 '억압의 가설'은 억압을 해방하는 기폭제가 된다. 그의 사상은 문학을 비롯한 모든 문화가 특정시대의 지배이념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는 텍스트의 자의성을 낳았다. 이것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고 한 시대의 문학텍스트를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당대 권력의 창출로 읽게 만든다. 문화는 당대 권력을 낳고 권력은 특정 문화를 낳으며, 주변으로 밀려난 문학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된다.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는 문학이나 문화적 현상을 당대 역사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읽는 새로운 방식이었고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역시 역사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난 텍스트를 복원하고 조명하는 연구이다. 포스트모던사상은 푸코에 의해 정치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난다. 몸의 물질성은 텍스의 물질성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90년대 동성애 해방운동인 '퀴어 이론'을 낳는다.

세 선배의 사상을 자신의 입장에서 합성한 푸코의 책은 인문학의 힘이 얼마나 크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인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권택영 님은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로, 1997년 김환태 평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잉여쾌락의 시대 : 지젝이 본 후기산업 사회》 등이 있다.